

엄마와 고향가는 날

내가 어렸을 때 엄마와 함께 관광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향한 적이 있었다. 탑승객들이 돌아가며 노래를 한 곡씩 불렀는데 엄마가 선택한 노래는...

제가 부를 노래는
'과수원길'입니다.

당시 난 너무 어렸기에 그 가사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엄마의 애창곡이라 지금도 기억한다.



1983년,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일이다. 평소 드라마정도 잠깐 보시던 엄마가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일을 끝낸 뒤 항상 TV를 시청하기 시작하셨다.



아빠가 보시던 뉴스와 스포츠 경기 외에 방송 채널은 단 하나로 고정되다시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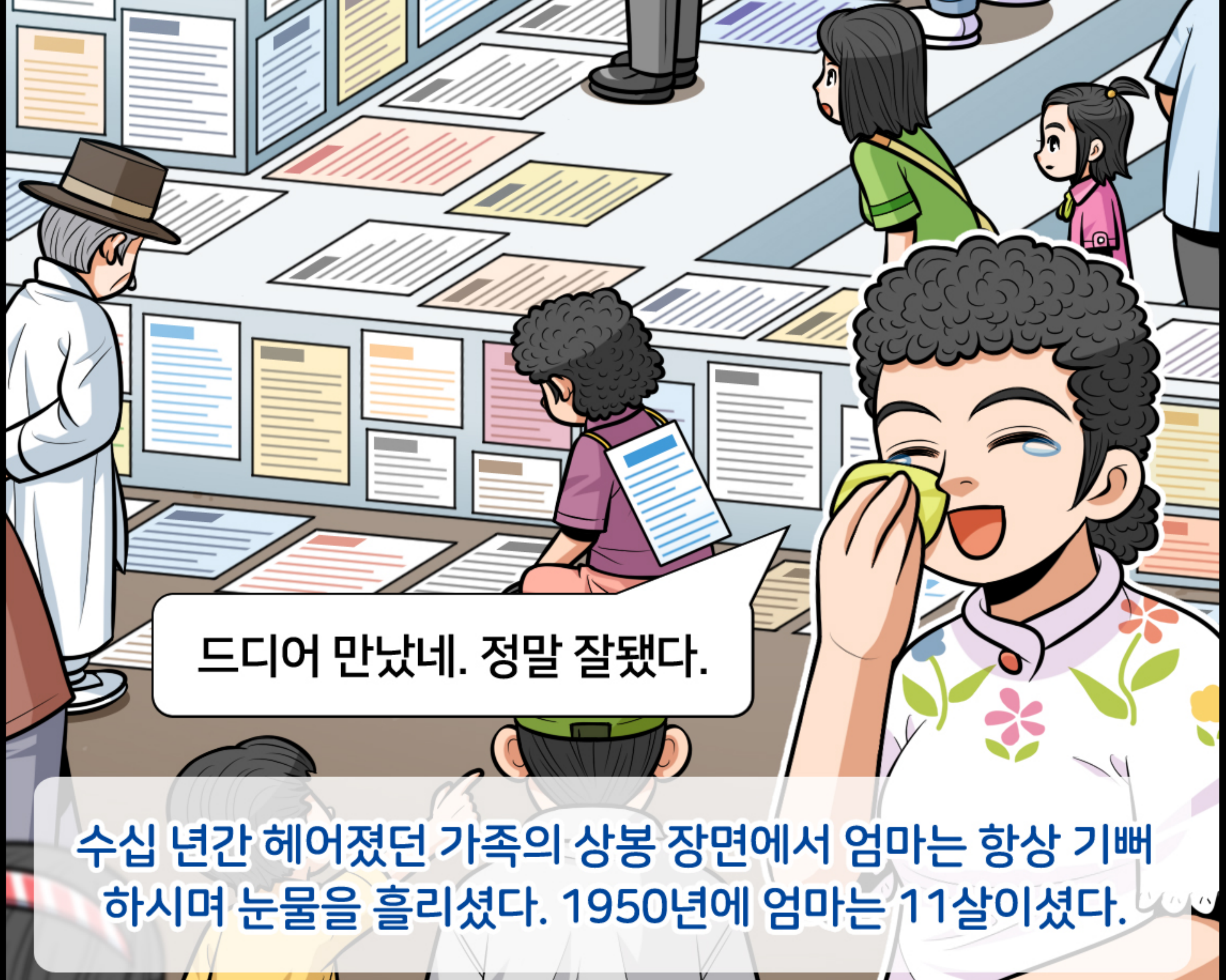
아빠는 전기세 많이 나온다면 해질녘 시간대에도
방 안의 형광등을 끄시곤 했다. 하지만 엄마의 매일 밤
늦은 TV 시청에도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으셨다.

엄마,
안 자?

이거 마저 보고...

엄마가 매일 보시던 프로그램은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였다.
부모님 모두 이북 출신이셨는데 헤어진 가족은 없다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매일 방송을 시청하셨다.

화면 속 방송국 주변은 건물벽과 바닥에 수많은 사연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그걸 하나하나 유심히 살피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드디어 만났네. 정말 잘됐다.

수십 년간 헤어졌던 가족의 상봉 장면에서 엄마는 항상 기뻐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1950년에 엄마는 11살이셨다.

전쟁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피난길을 떠나야만 하셨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실향민의 슬픔을 이산가족의 상봉 장면을 통해 엄마는 마음의 위로를 받은 게 아니었을까?



난 평생 한 동네에서 살고 있기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없지만
엄마는 그 11년을 그리워하며 '과수원길'을 애창하셨던 것이다.

1985년 첫 남북 이산가족 공식 상봉 이후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상봉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남북 관계의 경색이 길게 이어지며...



교류는 완전히 멈추었고 가족을 찾지 못한 고령자들이 한 분 두 분 돌아가시며 만남은 점점 힘들어질 상황이었다고 한다.

가족과의 생이별, 고향을 떠나게 만든 전쟁의 슬픈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 남북으로 헤어져 살던 가족들이 언젠가
다시 만나고 실향민이 고향을 찾는 유일한 해답은 통일이다.



세월이 흘러 나는 50대가 되었고 엄마는 80대의 머리 하얀 할머니가 되셨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엄마의 고향을 떠올리며 뒤늦게나마 조심스레 여쭙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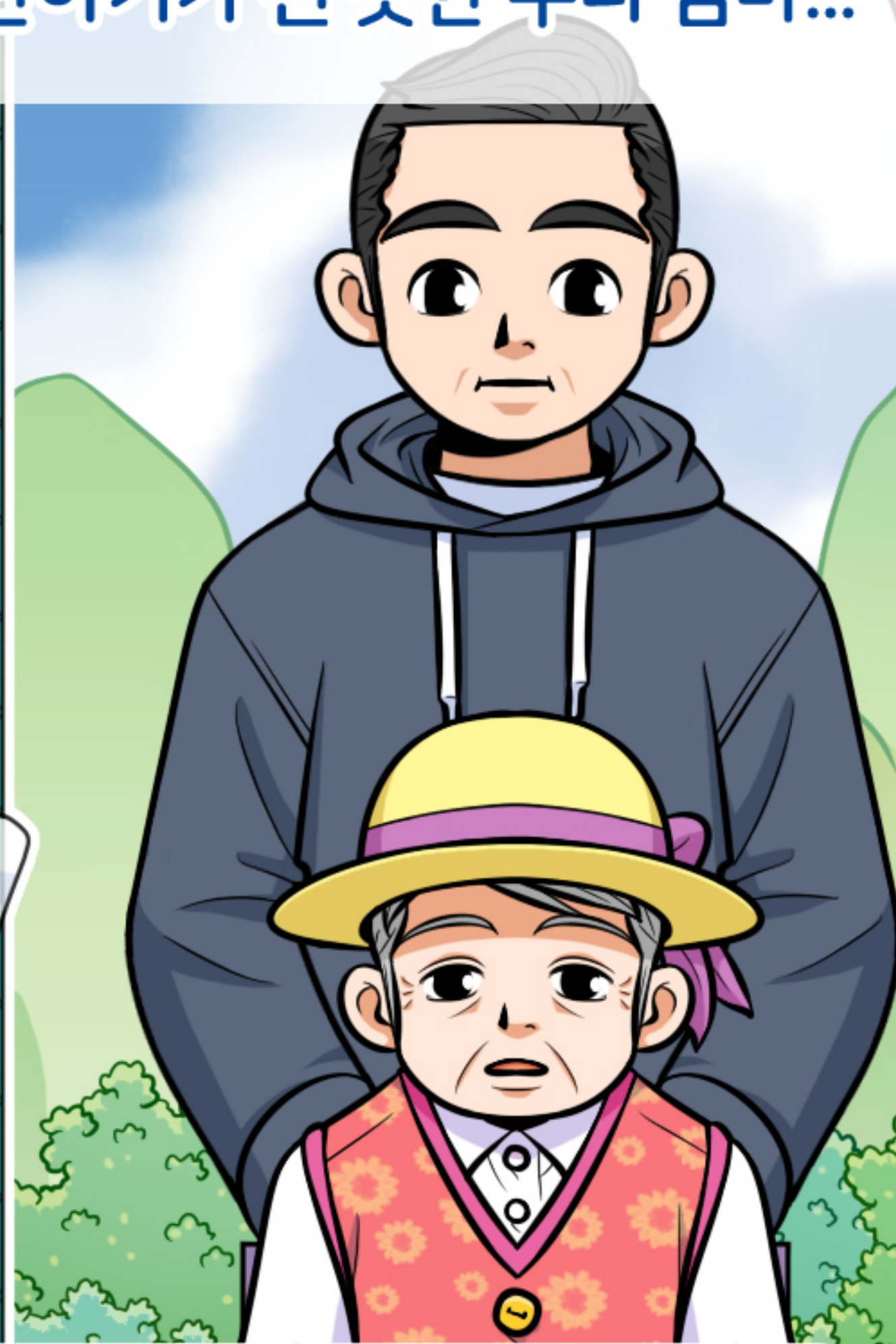
통일되면 엄마가 살던 고향에 가고 싶으시죠?

살던 동네가 어딘지 기억나세요?

.....

하지만 엄마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
가끔 알 수 없는 웅얼거림이 전부시다.

몇 해 전부터 어눌해지던 말씀, 알 수 없는 이상 행동을 하시던
엄마는 결국 삶의 모든 기억을 잃고 말하는 법도, 스스로 움직
이는 것조차 잊으셨다. 마치 갓난아기가 된 듯한 우리 엄마...



이젠 더 이상 옛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휠체어에
탄 엄마와 함께 고향 곳곳을 거니는 상상을 해본다.

엄마가 태어나고 자란 곳. 동네에서 뛰어놀며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던 그곳. 그 고향에서 엄마의
활짝 웃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다시 볼 수 있길
바라며 통일된 대한민국을 마음속에 품어본다.

고향에
다시 오니
좋으시죠.

어어... 헛-

통일로 모든 실향민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